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5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cathms.or.kr

복음 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부활 제5주간		
부활 제6주간		
부활 제7주간		
연중 제8주간		
연중 제9주간		

탈렌트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를 부르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받은 탈렌트를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연기자의 탈렌트



봉사자의 탈렌트



운동선수의 탈렌트



마더 데레사의 탈렌트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25,14-30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시다. 보십시오, 주인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빛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도 아닌 그분 자신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부만을 드림으로써 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봉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며 제 자신을 포기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사시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지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더 데레사의 「나의 빛이 되어라」 중에서)

탈렌트는 우리가 받은 재능, 능력, 적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거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에 부치는 일을 시키지도 않고 능력에 맞지 않는 사명을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탈렌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주신 탈렌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변명합니까?
-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를 부릅니다.

눔은 장님 찾기

가정에서 온 가족이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모여 앉습니다.

***준비물:** 가족 누만큼의 종이와 펜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 주세요.

† 잠언 12,25

‘마음속의 근심’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 한마디’가 그를 기쁘게 한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최근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마음속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 ③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좋은 말 한마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화를 나눠봅시다.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숨은 장점 찾기

사랑스럽다	유머감각이 있다	청순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인심이 넉넉하다	현신적이다	재치있다
용감하다	신앙심이 강하다	적극적이다	편안하다
똑똑하다	체계적이다	침착하다	예쁘다
신중하다	영리하다	활동적이다	잘생겼다
관대하다	집중력이 좋다	충실하다	명랑하다
차분하다	표현력이 있다	진실하다	다정하다
리더십이 있다	모험심이 있다	활기차다	강하다
우아하다	이해력이 좋다	정열적이다	세련되다
믿음직스럽다	책임감이 있다	성실하다	너그럽다
결단력이 있다	천진난만하다	창의적이다	온화하다
계획적이다	협조적이다	순수하다	상냥하다
귀엽다	부드럽다	검소하다	친절하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배려심이 강하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생각 나누기

- ① 각자 종이에 가족의 이름을 모두 쓰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장점 3가지를 선별하여 적어 봅시다.

김하늘	이바다	김푸름	김초록
잘생겼다	예쁘다	명랑하다	창의적이다
책임감이 있다	신앙심이 강하다	리더십이 있다	씩씩하다
믿음직스럽다	배려심이 강하다	편안하다	모험심이 있다

- ②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적은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발표해 봅시다.

❖ 함께 실천해요!

다음의 내용을 다함께 살펴보세요.

검사 對 변호사

검사는 한 사람의 죄와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변호사는 한 사람의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는 가족들의 단점과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착하는 검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바라보는 변호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을 때 가정의 행복은 더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지상에서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로버트 브라우닝)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논의가 필요한 일들, 가족 친지들의 생일, 축일 소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가족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자녀에 대한 훈계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지난 호에 이어 복음 나누기 7단계의 각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 묵상하는 사람들이 분심이 들지 않도록 침묵시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 주님과 함께 앉아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시간임을 명심합니다.
- 들리지 않으면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된다고 딴 생각으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눔을 할 때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나누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강제로 나눔을 하게 하지 말고, 어렵다면 다음 기회에 준비토록 합니다.
- 짧게라도 어떤 느낌으로 대화했는지를 언급합니다.
- 나누기를 할 때 “저는” 또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사람의 나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하며,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 나눔의 내용은 소공동체 모임 밖에서, 혹은 다른 이들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⑥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 소공동체 모임은 단순한 기도 모임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활동은 공동체의 성화와 일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은 그리스

도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공동체가 실천 가능한 활동을 정하고 실천합니다.
- 구체적인 활동을 정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합니다.
- 활동사항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차기에 실천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 사정상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활동시간에 맞추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 활동사항에 대해 서로 나눌 때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⑦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기도하도록 안배합니다.
-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포함하면 더욱 좋습니다.
-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합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후

- ①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을 바칩니다.
- ② 성호경으로 모임을 끝마칩니다.
 - 모임시간이 길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후

- 소공동체 모임 후에 별도의 음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 모임 후 일치시간이 있다면 너무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 너무 길게 또는 너무 짧게 모임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찡한 사랑

김부자 카타리나(구암동 본당, 지역부장)

구암동 성당은 25주년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기 성당이라고 할까요. 청년기답게 요즘 평일미사에도 성전이 가득 찬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구암동 성당은 3개 구역 23개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계신자는 많지만 주일에 나오시는 신자는 약 450명입니다. 우리 성당은 아파트도 상가지역도 아닌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다보니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반도 있습니다. 반장님이나 총무님이 이사를 가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여 몇 달씩 공석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장을 맡고 있다 보니 ‘반장, 총무님을 좀 맡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 보지만 다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에서는 소공동체 모임을 형제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 소공동체 모임 시간을 밤 시간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옵니다. 대체적으로 소공동체 모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도(3구역1반) 매월 둘째 화요일 2시에 하다가 지금은 월요일 1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인원수는 10~13명, 연령은 40대~80대까지 한자리에 모여 친형님 아우처럼 하느님 말씀 안에서 찡한 사랑을 느끼며 복음 나누기 7단계를 능숙하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창한 활동계획은 세우지 않고 쉬는 교우 주보전달, 회두권면, 가끔

전화하기, 환자방문 위로하기, 홀로 계시는 할머니 댁에 찾아 가보기, 김장철에 반원 각자 김치 한 포기씩 갖다드리기, 반원 애경사시에 축·부의금과 일손돕기, 한 달 동안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전입자 방문하기 등 매월 지향은 다르지만 한 달 동안 묵주기도 숙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함께 하자고 반원님들께 성가시게 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번엔 제가 다른 반으로 이사를 가면서 반원님들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반원님께서 본당 협조하고 계신 것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총 세대수는 28세대 중 쉬는 교우 5세대, 열심히 앓는 교우 4세대, 나머지 19세대중 레지오 행동단원 20명, 본당협조보는 선교분과, 교육분과, 구역분과, 꾸리아 부단장, 서기, 제대회 간부, 바오로회 간부, 연령회재무, 제대꽃꽂이, 해설협조, 차량봉사 등 각자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반원님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3구역 1반 반원님들께서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소공동체 모임을 하시리라 믿으며 마음으로 항상 응원 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찜한 사랑을 느끼고 떠나면서 반원님들께서 협조 잘해주신 것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반원님들께서 모두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사목국에서는 소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다양한 사례를 보내어 주세요.
문의: 055-249-7021~3 메일: mssamok@hanmail.net
우편: (631-860)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7-23번지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사목국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여 인간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불러주시고 인간들이 받아 적었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생각하듯 단순히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 즉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내포한 사건이나 표징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말이란 언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뜻과 마음을 전할 때 꼭 말로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입에 발린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조용히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더 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인간 역사 안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의 선택

등을 통해서도 당신의 가르침과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이란 하느님께서 들려주신 인간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내포한 사건이나 표징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내포한 구체적인 사건들과 표징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되어 왔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구전이나 문서로 후대에 전해 주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단계적으로 기록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기원후 100년에 이르는 오랜 과정에 걸쳐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은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단계적으로 수집되고, 기록되고, 다듬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성경 안에 73권의 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형태도 하느님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대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학 양식으로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시로써 뜻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시로써 당신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야기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보편적이던 시대에는 산문으로, 신화와 법조문이 널리 쓰이던 시대에는 하느님의 뜻이 신화와 법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 안에는 한 가지 문학 양식이 아니라 설화, 법조문, 시, 예언, 기도, 노래, 연설, 잠언, 비유, 환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황(池璜·사바 1767~1795년)

- 사제를 모셔온 공로자 -

김길수·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단 한 분의 선교사도 없이 창립된 한국 천주교회는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으로 명례방 집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때 권일신 선생을 중심으로 교회재건운동이 시작되고 평신도에 의한 임시성사를 집행하면서 사제의 필수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한국초대교회는 이렇게 사제의 필수성과 중요성을 역사적 체험으로 절실히 깨달은 교회이다.

사제를 모셔와야 한다는 이 지상의 과제는 결코 쉽지 않았다. 1789년부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사제를 영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북경의 구베아 주교께서 선교사제를 한국에 파견했지만 조선에서는 제사문제로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한 1791년의 박해로 사제영입에 실패했다.

사제영입 운동이 1793년에 재개될 때 한국교회의 첫 번째 중국파견 밀사였던 윤유일 바오로와 함께 지황(池璜·사바, 1767~1795년)이 밀사로 선정되어 조선 사신의 행렬에 끼어 북경으로 향하였다. 국경에서 윤

유일은 남고 지황 사바는 또 한사람의 밀사인 박요한과 함께 북경으로 갔다. 북경에 도착한 지황은 구베아 주교를 만나 그간 조선 안의 박해로 사제를 모셔가지 못한 사정을 말하고 다시 간곡히 사제를 청했다. 그리고 그가 북경에 머무는 동안 지극한 신심과 열정으로 성사를 받고 전례에 참례하여 북경교우들을 감동하게 하였다. 뒷날 구베아 주교께서 디디에르 주교께 보낸 편지(1797. 8. 15)에 지황의 죽음을 알고 회고하고 아쉬워하시며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는 1793년 지황의 신앙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일간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견진과 고해와 성체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교우들은 그의 신심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사정과 요청을 듣고 구베아 주교는 1794년 초에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지황 사바는 곧 주문모 신부를 만나 국경에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헤어져 각각 다른 길로 가서 국경에서 만났다. 그러나 감시가 심하여 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강물이 얼기를 기다려야 했다. 지황은 주 신부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져 강물이 얼기를 기다려 마침내 그해 12월 24일 밤에 압록강 물이 얼자 얼음 위로 감시의 눈을 피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최초의 사목사제를 입국시키는 데에

기여했던 지황 사바는 일명 지홍이라고도 하며 단양출신인 그의 부친은 서울로 와 궁중악사로 활동하였다. 궁중악사집안 출신인 그도 음악가였으나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교리를 배웠다. 그의 입교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의 아내 김염이 안나가 1791년에 남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로 보아 그는 그 전에 입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전교에 가장 힘쓴 인물 중의 하나로 손꼽혀 사제영입을 위한 밀사로도 선택되었다. 그는 사제영입 밀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 신부를 1794년 12월 24일 의주로 잠입시키고 1795년 1월 4일 서울 계동의 최인길 마티아 집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러나 진사였던 한영익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거처가 알려지고 즉시 체포령이 내려졌다. 밀고 사실을 탐지한 신자들의 재빠른 노력으로 위험에 처했던 신부는 겨우 피신하였지만 대신 신부를 모셨던 최인길과 신부영입에 헌신했던 지황 사바도 윤유일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지황 사바와 동료들은 다른 신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쉽게 잡혀 포도청으로 압송되고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용감한 사제영입의 공로자들은 사제를 지키려고 결코 사제의 행적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문초와 형벌에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이었다. 형벌을 받는 중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천상의

기쁨이 넘쳐 얼굴이 밝았다.

박해자들은 이 용감한 신앙인들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정없이 매를 치기만 했다. 마침내 지황은 최인길, 윤유일과 함께 매 맞아 죽기에 이르는 장사를 당하였다. 사제를 지키려는 한국 평신도들의 이 정신은 우리 역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그들의 시신은 비밀리에 강물에 던져져 찾을 길 없었지만 이들은 한국교회가 존속하는 한 기억될 것이다. 1996년 이들은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어 지금 시복 시성 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수원교구 어농리성지(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어농리 풍덕마을)에는 지황의 가묘가 조성되어 있다.

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시신을 거두려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다. 그런데 그 시신을 찾을 길도 없이 비밀리에 강물에 던져지던 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로 당시 지황 사바의 나이 28살이었다.

구베아 주교는 그의 애닦은 소식을 듣고 편지에 “그들은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욕하기 보다는 차라리 천 번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했다면 서 그들을 추모하였다.

사목국 알림

»» 사목국

소공동체장연수(창원·통영지구)

소공동체장연수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각 본당 구역분과장, 소공동체장, 회계, 서기님들께서는
신청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 교구 공문 참조하여 신청

참가비 : 1인 7,000원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컵

문 의 : 055) 249-7021~3

창원지구

일 시: 2010년 5월 6일(목) 오후 13:00~16:00

장 소: 창원 사과공동성당

통영지구

일 시: 2010년 5월 13일(목) 오후 13:00~16:00

장 소: 거제 장평성당

»» 가정사목국

가나혼인강좌

일 시: 2010년 4월 18일(주일) 13:00

장 소: 마산교구청 강당

대 상: 혼인성사를 앞둔 미혼 남녀

문 의: 055) 249-7028~9, Fax.249-7100

신청서는 각 본당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